

예장 합동 출신 여성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예장 합동 소속 모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길 때의 일입니다. 80여 명의 순원들이 있었던 마을장이었던 저는 순장님이 8명 정도 함께 그루터기 마을을 섬겼었습니다. 순장이 순원들과 함께 예배 후 성경공부를 이끄는 형태였었죠. 300여 명 대학생들은 전국에서 대전의 대학에 진학하고 모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되시는 순장님이 찾아오셨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렸을 적 원치 않는 관계로 병에 걸리게 되었고 지금도 장애를 갖고 있다는 고백과 사실 약을 먹고 견디며 형제(남자들을 말합니다)들과의 성경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말이죠.

씩씩했었던 성격에 남자아이들과 함께 대부분 순을 이끌었던 언니 순장님에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었죠.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긴급히 조원들을 재조정 필요성을 느끼고, 여자아이들과 함께 성경공부 그룹을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담당 목사님과 상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야?' 하는 목사님의 태도에 저는 격분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해당 순장님은 그만 두셨어야 했죠.

여성에게는 여성에게만 나눌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 밖 세상은 여성의 지위를 포함하여 훨씬 앞서가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여성 사역자, 여성 목사들을 더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난주, 상기 모 교회가 소속한 교단인 예장 합동은 여성 사역자, 전도사님들을 강도사까지만 허하고, 남성만 목사가 되게끔 교단 헌법을 변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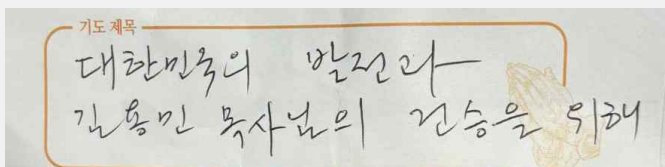
한 달에 한 번,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상경하여 참석하는 벙커1교회 김용민 목사님의 글을 공유하며 저의 SNS와 연계된 합동측의 많은 여성 사역자분에게도 아래 소식을 전합니다.

/ 이진영 집사

존경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여성 전도사님들께, 저는 기장(벙커1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용민 목사입니다. 아무리 역량과 진정성을 지닌 분들이라 해도, 예장 합동 총회가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여성 교역자님들을 가로막을 때 느끼실 아픔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합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르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맞아 교육부서를 섬겨주실 교역자를 찾던 중,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합동에서 길이 막힌 역량 있는 여전도사님들을 모시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의 미래 지도력이 여성 목회자들 강화에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교단 소속만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현실은 한국교회 전체의 손실이라 여겨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생각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합동의 여성 전도사님들, 우리 교회와 가장 공동체에서 함께하시며 새로운 목회 리더십을 세워가시겠습니까?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목사 안수받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문의 또는 연락처 kimyongminpd@gmail.com)



정치검찰에 의해 혹독한 탄압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주 교회 헌금함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담아 헌금했다.

2025년 10월 5일
통권 13권 30호
창조절 5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베소서 4:2

주일에배순서

오전 11시

사회 이상훈A 집사

찬양팀

인도 오광석 전도사

■ 찬양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운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가사는 모니터 또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 징 울리며 묵상하기

정방남 원로

■ 신앙고백

일어서서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북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찬송

찬송가 560장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후렴]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 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에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싹튼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에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힘 솟는다

■ 기도

양미혜 집사

■ 성경봉독

요한복음 4:7~14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 설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의 삶은 관계의 실패와 상처로 점철되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러 차례 결혼과 동거는 심각한 수치로 여겨졌고, 그녀는 공동체로부터 도덕적·사회적 낙인을 받으며 외면당했습니다.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홀로 물 길러 나온 것은 그 고립을 상징합니다. 여느 여인들처럼 함께하지 못하고, 눈총과 조롱을 피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또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 민족, 신앙을 잃은 자라 여기며 멸시했습니다. 식사도, 교제도 피했고, 심지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 먼 길을 돌아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여자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도덕적으로 낙인찍힌 사람이라는 삼중의 소외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적으로 깊은 갈급함과 목마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만족과 영생을 약속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왕따와 소외는 현대 사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도 요셉, 다윗, 예언자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고향과 군중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는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고,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 멸시를 당했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도 백정과 천민, 향약에서 제명된 자, 일제강점기와 전후 사회에서의 정치적·이념적 배척은 집단적 따돌림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왕따는 인류 역사 전반에 흐르는

오래된 죄성의 산물입니다.

최근 드라마 피라미드 게임은 이를 현대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꼴찌가 되어야 한다는 구조, 두려움과 동조 속에서 약자를 희생시키는 시스템은 학교뿐 아니라 직장, 심지어 교회와 기독교 기관 속에서도 반복됩니다. 직급과 상관없이 눈밖에 난 사람은 비공식적 서열의 밑바닥으로 밀려나고, 동료들은 침묵과 외면으로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배제된 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세리 삭개오, 문둥병자, 사마리아 여인과 교제하셨고, 당시 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자들의 가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세상의 피라미드는 약자를 희생시켜 강자의 권력을 유지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약자를 끌어안아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질서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왕따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소외된 이웃 곁에 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짐을 함께 지며,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할 용기도 필요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작은 자리에서라도 눈치가 아닌 양심을 따르고, 약자 곁에 서며,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입니다.

“피라미드 게임”은 허구의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거울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세상의 논리에 안주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왕따 당한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며, 생명의 물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만 교회와 성도의 삶이 진정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사회자

■ 파송곡

일어서서
교회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 축도

김용민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

| | |
|--|---|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사무엘상 8:10~18 왕을 구한 대가 영광석 전도사 | 벙커틴 (청소년) 메디피아공간대어 느헤미야서 1장 언약 백성의 특권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일예배 수 오후 7시 📺

| | |
|----|-----------------|
| 찬양 |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
| 본문 | 욥기 19장 |
| 설교 | 욥의 대답 김용민 목사 |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추석 연휴를 맞아 한 주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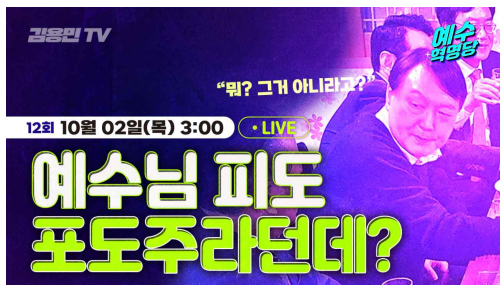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영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민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오늘은 한국 개신교인의 윤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 보려 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절제운동에서 비롯된 금주규연 규범, 그리고 사회개혁에 앞장섰던 한국 교회의 역사.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는 최저 호감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왜 신뢰를 잃었을까요? 교리와 삶의 태도,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어떤 해답을 찾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다소 어렵습니다. 교인은 신앙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할 힘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30일(화)에 서울북노회 강북시찰회가 고양예배당에서 있었습니다. 10여분의 목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양미혜 집사가 회의를 위해 간식 제공 등으로 헌신했습니다.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 안내 추석 연휴를 맞아 새벽성서읽기는 한 주 쉬고, 수요일 예배는 오프라인 모임 없이 유튜브로 함께 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10월 11~12일(토~일)에는 인천 강화 일대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든 청년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 10월 19일에는 올해 전교인 대상 비폭력대화가 있습니다. 교인 의무 수강인 만큼 모두 참여하기 바랍니다. (강사 : 박지호 갈등전환센터장)

성탄절 연합성가대 12월 25일 오후 성탄절 당일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신학대학원) 예배당에서 서울북노회 교회들의 연합 성가대 공연이 있습니다. 다음 연습은 10월 12일 한빛교회입니다.

인문 사회학적 성서 읽기 오후 1시부터 이용수 전도사 인도로 진행합니다.

9월 십일조 결산 9월 십일조는 필리핀 타클로반 선교를 위해 애쓰는 사공세현 선교사의 광명장로교회에 1,157,021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양미혜 장로 취임식 양미혜 집사의 장로 취임식을 노회 보고 후인 11월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신학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 | | |
|-----------------------|-----------------|-----------------------|
| 10월 교회 십일조 옥바라지선교회 | 10월 안내 1여교우회 | 지난주 헌금액 2,354,204원 |
|-----------------------|-----------------|-----------------------|